

2019년 11월 2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으로 혼조 마감 트럼프 “무역협정 없으면 대 중국 관세 인상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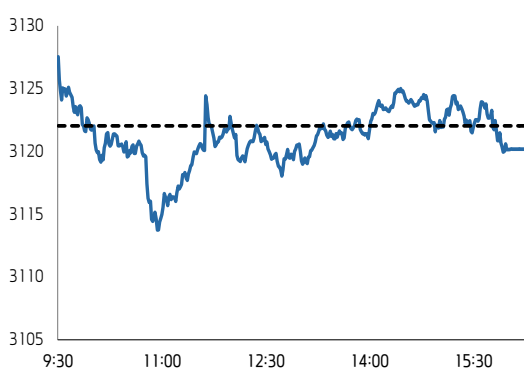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부진한 기업실적 ②트럼프, 윌리엄스 발언 ③바이오 업종 강세

미 증시는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차익욕구가 강화된 가운데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히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협정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이 부담. 그러나 오후 들어 특히 바이오주가 개별 호재성 재료로 상승하고, 미-중 정상회담 구체화를 기다리며 반등(다우 -0.36%, 나스닥 +0.24%, S&P500 -0.06%, 러셀 2000 +0.37%)

미 증시는 ①부진한 기업실적 ②트럼프, 윌리엄스 총재 발언 ③바이오 업종의 강세로 변화.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5.44%)가 매출 부진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한 여파로 급락. 특히 동일매장 매출이 예상(4.7%)을 크게 하회한 3.6% 증가에 그치는 등 소비 부진이 주요 요인. 이런 가운데 백화점 체인점인 콜스(-19.49%)도 동일매장 매출이 예상(0.8%)을 크게 하회한 0.4% 증가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급락. 이 여파로 여타 소매유통업체들이 부진.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이 없으면 대 중국 관세를 인상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옴. 그러나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는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협상을 끝내야 한다” 라고 언급해 11월 언젠가 1 단계 협상을 체결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실제 이 발언 이후 지수는 낙폭을 축소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라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 요인. 특히 “올해 세번의 금리를 인하 했으나, 미국 경제에 중대한 악화가 있을 경우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 이라고 언급. 유연한 연준의 정책을 시사. 많은 연준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 성향의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의 유연한 통화정책 시사는 투자심리 개선 요인. 여기에 바이오젠(+0.99%)과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16.97%), 버텍스(+2.38%) 등 바이오 업종이 개별 호재성 재료로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은 상승. 결국 미 증시는 트럼프 발언 여파로 하락과 반등을 보였고, 기업들의 호·악재로 인해 변화를 보이며 혼조 마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상승률(%)	Close	D-1	지수	상승률(%)	Close	D-1
KOSPI		2,153.24	-0.34	홍콩항셍		27,093.80	+1.55
KOSDAQ		662.53	-1.02	영국		7,323.80	+0.22
DOW		27,934.02	-0.36	독일		13,221.12	+0.11
NASDAQ		8,570.66	+0.24	프랑스		5,909.05	-0.35
S&P 500		3,120.18	-0.06	스페인		9,259.20	+0.01
상하이종합		2,933.99	+0.85	그리스		893.37	+0.57
일본		23,292.65	-0.53	이탈리아		23,329.21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소매유통업체 부진 Vs. 바이오업종 강세

홈플러스(-5.44%)는 부진한 매출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로이어스(-1.41%)도 동반 하락했다. 백화점 체인점인 콜스(-19.49%)는 아마존(+0.01%)의 리턴 프로그램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했으나, 예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부진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 했다. 메이시스(-10.90%)도 동반 급락 했다. 다만 콜스의 실적 부진은 수요 부진에 따른 여파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지수 전반에 걸쳐 하락을 야기시키지는 않았다.

의류업체인 갭(-3.01%), 노드스트롬(-6.26%), L브랜드(-3.86%), 어반 아웃피터(-4.54%)와 물류회사인 UPS(-1.82%), 페덱스(-1.29%) 반도체 회사인 퀄컴(-2.79%), 마이크론(-2.59%), NVIDIA(-2.02%)는 트럼프의 대 중국 추가 관세 언급 여파로 하락 했다. AT&T(-4.11%)는 무선 비즈니스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목표주가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반면, 브로드컴(+2.13%)은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바이오젠(+0.99%)은 특허분쟁 해결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16.97%)은 임상 데이터의 양호한 결과로 급등했다. 협력업체인 벡텍스 파마슈티컬(+2.38%)도 동반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24%	대형 가치주 ETF(IVE)	-0.36%
에너지섹터 ETF(OIH)	-1.32%	중형 가치주 ETF(IWS)	+0.01%
소매업체 ETF(XRT)	-1.94%	소형 가치주 ETF(IWN)	+0.10%
금융섹터 ETF(XLF)	+0.20%	대형 성장주 ETF(VUG)	+0.19%
기술섹터 ETF(XLK)	+0.19%	중형 성장주 ETF(IWP)	+0.5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6%	소형 성장주 ETF(IWO)	+0.69%
인터넷업체 ETF(FDN)	+0.45%	배당주 ETF(DVY)	-0.73%
리츠업체 ETF(XLRE)	+0.21%	신중국 고배당 ETF(DEM)	+0.53%
주택건설업체 ETF(XHB)	-1.09%	신중국 저변동성 ETF(EEMV)	+0.02%
바이오섹터 ETF(IBB)	+1.99%	미국 국채 ETF(IEF)	+0.19%
헬스케어 ETF(XLV)	+0.68%	하이일드 ETF(JNK)	-0.32%
곡물 ETF(DBA)	-0.37%	물가연동채 ETF(TIP)	+0.18%
반도체 ETF(SMH)	-0.34%	Long/short ETF(BTAL)	+0.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8.17	-1.47%	-2.92%	-1.37%
소재	376.26	-0.32%	-0.61%	+5.14%
산업재	689.24	-0.12%	+0.08%	+4.81%
경기소비재	945.67	-0.97%	-0.53%	-1.12%
필수소비재	631.08	-0.25%	+1.11%	+0.86%
헬스케어	1,129.84	+0.65%	+2.53%	+6.32%
금융	494.73	+0.16%	+0.27%	+4.87%
IT	1,537.04	+0.24%	+1.46%	+8.60%
커뮤니케이션	177.66	-0.26%	+1.46%	+4.72%
유틸리티	317.58	-0.25%	+1.88%	-2.76%
부동산	239.74	+0.18%	+3.22%	-3.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인민은행의 LPR 인하 여부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5%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36 계약 순매수 했으나 0.20pt 하락한 286.0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7.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장 중 트럼프의 대 중국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공급 증가 우려로 3% 넘게 급락하고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최근 외국인의 매물이 이어지며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 이러한 변화 요인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중 정상회담 구체화에 대한 기대와 장 초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유연한 통화정책을 시사한 점등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이러한 호·악재가 혼재된 상태에서 보험권 등락이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대출우대금리(LPR)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11 월 상반월 동안 20%나 급락해 유연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민은행은 7 일물 역 RP 금리를 인하(2.55%→2.50%)해 대출우대 금리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1 년물 LPR 을 올해 2 차례 낮추다가 10 월 들어 시장 예상과 달리 동결했다. 그러나 중국 실물경제지표가 부진하는 등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오늘 LPR 을 인하가 예상된다.

물론 전일 중국 증시가 이에 힘입어 상승했고, 한국 증시도 낙폭을 축소해 영향력은 제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호재성 재료는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지표 개선 지속

10 월 미국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126.6 만건)을 상회한 131.4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132 만건)을 소폭 하회했다. 그러나 주택허가건수는 전월(139.1 만건)이나 예상(137.8 만건)을 상회한 146.1 만건을 기록해 주택시장 개선 기대를 이어갔다.

3 분기 미국 온라인 소매판매는 전분기 대비 5.0% 증가로 발표돼 지난 분기 발표(4.8%)를 상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12 월 OPEC 정례회담을 기다리며 하락 했다. 러시아가 겨울철을 감안 추가 감산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공급과잉 우려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11 월에도 러시아는 감산 이행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더 나아가 노르웨이 10 월 생산량이 예상보다 증가한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FOMC 의사록 공개를 기다리며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 양상을 보였다. 엔화는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언급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파운드화는 12 월 12 일 총선에 대한 기대와 브렉시트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10 월 자동차 판매 급증을 기반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행동을 취하지 않자 무역확장법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관세 부과 권한은 사라졌다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발표도 유로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제금리는 주택지표 개선 불구 트럼프의 대 중국 관세 부과 언급 여파로 하락했다. 더불어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비록 금리 동결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유연성 있는 통화정책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 일정 구체화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며 재차 반등하는 등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등락은 제한되었다.

금은 트럼프의 대 중국 관세 부과 언급 여파로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트럼프의 발언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관망세가 짙어 보험권 혼조세로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2% 철근은 1.73%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5.21	-3.23	-2.80	Dollar Index	97.851	+0.06	-0.47
브렌트유	60.91	-2.45	-1.85	EUR/USD	1.1079	+0.06	+0.64
금	1,474.30	+0.16	+1.42	USD/JPY	108.54	-0.13	-0.43
은	17,265	+0.71	+2.55	GBP/USD	1.2925	-0.22	+0.62
알루미늄	1,731.00	-0.40	-2.64	USD/CHF	0.9906	+0.10	-0.25
전기동	5,875.00	+0.77	+0.10	AUD/USD	0.6826	+0.22	-0.22
아연	2,344.00	0.00	-5.18	USD/CAD	1.3269	+0.48	+0.27
옥수수	380.75	+0.93	-1.49	USD/BRL	4.1994	-0.23	+1.24
밀	515.25	+0.88	-1.25	USD/CNH	7.0286	+0.04	+0.06
대두	911.50	+0.14	-0.60	USD/KRW	1167.60	+0.27	+0.59
커피	106.15	-2.79	-2.53	USD/KRW NDF 1M	1167.80	+0.09	+0.1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784	-3.10	-15.04	스페인	0.426	+1.50	-1.40
한국	1.725	-5.50	-11.70	포르투갈	0.368	+2.40	+0.90
일본	-0.080	-0.30	-6.00	그리스	1.419	-0.20	+3.80
독일	-0.339	-0.30	-8.70	이탈리아	1.243	+3.60	+2.80